

01. 하브루타란?

하브루타란 ‘친구 가르치기’라는 의미의 유대인들의 말입니다. 좀 더 쉽게 풀이를 하면 서로에게 교사가 되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친구 가르치기라는 말이 왜 한국에서 학교수업이나, 가정에서 이렇게 인기를 얻고 있을까요?

주입식 교육에서 돌파구가 필요한 우리의 교육이 급격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경제가 위기에 처해지면서 세계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유대인들은 결핍을 가장 많이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 결핍 속에서 교육의 힘으로 많은 분야에서 세계 최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교육으로 다시 세운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자부심입니다. 하브루타라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러한 유대인들의 역사와 그들의 사상과 정신을 알아야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교육을 감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객관화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교육에 이런 유대의 교육의 한 부분을 일컫는 말을 도입할 때는 그들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교육현실을 바라보고 몇 가지의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우리교육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정신은 무엇인가를 객관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필요한 부분에 무엇을 도입할까를 고민해야 하는데 지금의 방법으로는 무조건적인 비판과 무분별한 도입만을 하는 부분이 있는지라 하브루타라는 말로 도입한 수업이 유대적인 교육인지, 한국적인 교육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하브루타라는 말로 유대인교육을 단일화시키다보니 일선현장에서는 애매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육이 어떤 특정한 한 가지 말로 대체가 될 수 없는 것은 개인의 삶과, 사회인으로서의 삶 그리고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삶등 다양하게 얹혀있는데다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다시 서로 맞물리거나 공존하는 형태로 혼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해야 할 것은 우리교육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교육의 문제점은 누구나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교사위주의 강의식

주입식

4시선다형의 정답을 요구

주관식도 한가지의 답을 요구

혼자하는 공부

내 생각을 말할 수 없는 수업에 흥미를 잃어가는 아이들

수업흥미나 능력에 관계없는 수업진도

입시에 맞추어진 수업내용과 진도

질문이 필요 없는 수업

내가 궁금한 것과 관계없는 수업
일상생활과 관계없는 암기식 수업 등입니다.

하지만 우리교육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지만 너무나 익숙해서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 국가, 사회, 가정이 일관되게 교육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2. 부모의 교육열이 높다.
3. 교사의 열정과 사명감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강하다.
4. 공부의 DNA가 아직도 세포 속에 녹아있다.
5. 성공보다는 인성을 더 중요시 여긴다.
6. 어른(교사)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중요시 여긴다.
7.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8.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9. 한국인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10. 오랜 역사 속 문화와 전통이 교육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11. 국가적 어려움이 생기면 뭉치는 힘이 있다.
12. '효'와 '예의'의 덕목이 살아있다.
13. 역사와 함께 일구어 온 창의성이 크다.

이 밖에도 찾으면 많겠지만 교육과 관련된 것들을 찾는다면 이 정도로 열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수업을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데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 교육에는 방법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공부의 밑바탕 작업입니다. 우리교육의 밑바탕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밑바탕작업은 인성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정보를 담는 것이 공부라면 그것을 담을 그릇준비가 얼마큼 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그릇의 모양이나 재질 그리고 크기를 가능해야하지요. 그래야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어떤 부분을 수정할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지켜야 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교육부분에서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들은 당연히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찾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우리의 모든 교육내용이나 방법을 부정하고 잘못된 관점에서 비판만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질문으로 우리의 교육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브루타를 통해 우리가 가진 강력한 메시지는 질문입니다. 친구가르치기, 서로 선생님이 되기라는 하브루타의 의미를 전성수 교수는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한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아닌 질문을 하기도 하고, 대화를 하며, 토론을 하면서 논쟁도 배워야한다는 의미겠지요. 이렇게 평범한 말이 어떻게 수업현장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들 것입니다.

여기서 '짜을 지어'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정의한 것보다 여기에서는 '질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의 중요성을 그동안 알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실제 질문을 체화하지 않았습니다. 하브루타교육협회에서 김정완이사는 여기에 물꼬를 트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 것인지 교육현장의 변화는 쉬운말, 쉬운 행동으로 시도를 해보아야 하지요.

그것이 바로 학습자가 질문을 만들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또 막연하겠지요.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열 가지의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 혹은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질문을 먼저 만들어 보는 것, 공부를 해야 할 단원을 학습자가 질문을 만들어보는 것, 그리고 만든 질문을 가지고 친구와 대화를 해보는 것입니다. 글 전체에서 한 두개의 질문도 효과가 큰데 짧은 문장을 가지고 질문을 10가지 정도 만들면 문장과 문장밖에 것 그리고 그 문장을 보는 나의 다른 생각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간단하지만 획기적인 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시도를 해 보는 경우에 아이들이 질문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만든 질문으로 수업시간에 짝과 함께 이야기를 서로 해보는 효과는 상상이외로 컸습니다.

1. 마음대로 질문을 만들 수가 있고
2. 그러다보니 교과서이외의 것을 질문이 가능하고
3. 어떤 질문도 가능하니, 어떤 이야기도 가능하고
4. 나의 질문에 친구가 답을 하니까 서로 다른 생각을 알 수가 있고
5. 함께 하니 분위기가 좋아지고
6. 조용히 듣기만 하던 수업에서 활발하게 참여하는 수업으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학습자들이 만든 질문들을 비교해보면서 서로 다른 질문, 서로 다른 생각을 통해 배움의 자 극효과가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혼자 하는 공부보다 함께 하는 공부의 위력을 알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유대인의 하브루타와 매우 다른 한국적 질문에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질문 만들기가 없습니다. 그냥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것을요.

여기에서 우리는 내가 만든 질문의 효과 그리고 이야기하는 효과의 맛을 처음 본 것입니다. 듣기만 하는 수업에서 말하는 수업이 시작된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 현재의 질문만들기의 한계 점은 무조건 만들고 본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만든 질문을 어떻게 할까는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준비해야 할 부분입니다.

02. 질문 만들기

하나의 문장 혹은 한 단락의 문장을 가지고 질문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아신다면 교실수업이나 가정에서 공부의 스스로 하는 공부의 효과에 대해서 쉽게 짐작이 되실 겁니다. 처음에는 질문 만들기만으로도 효과를 보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질문 만들기에서 이야기로 연결해가는 작업이 더 만만합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쉽게 접하는 우리 속담으로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0가지 이상 만들어 볼텐데요. 직접 만들어 보십시오.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1. 낮에 하는 말은 무엇일까?
2. 낮에는 누구랑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3. 새가 말을 들을 수가 있을까?
4. 새가 말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5. 밤에는 주로 어떤 말을 하는 것일까?
6. 밤에는 주로 누구와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7. 밤에는 쥐가 잠을 자지 않는가?
8.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대인가?
9. 쥐가 말을 들을 수가 있을까?
10. 새와 쥐가 말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11. 이 속담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12. 항상 누가 듣는다면 우리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13. 누가 들어도 괜찮은 말은 어떤 것이 있을까?
14. 말이 안 되면 글로 써야 하나?
15. 글로 써서 흔적이 남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16. 그 사람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면, 없는 곳에서도 하지말라는 의미와 같은 속담일까?
17. 낮말은 쥐가 듣고 밤 말은 새가 듣는다면 의미가 바뀔까?
18. 새와 쥐는 스파이들을 말하는 것일까?
19. 듣는 새나 쥐의 입장이 되어본다면?
20. 새와 쥐는 부정적인 인물에 대한 묘사일까?
21. 이 속담이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22. 이 속담은 누가 만들었을까?
23. 이 속담이 생긴 상황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본다면?
24. 나의 경험으로 보아 이 속담이 필요한 때는?
25. 내가 전하지 않았는데 내 말을 누구 옮겨진 경우가 있었을까?
26.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는 말과는 어떻게 다를까?
27. 비슷한 속담이나 격언은 어떤 것이 있을까?
28. 말에 대한 다른 속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29. 다른 나라에는 말에 대한 속담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30. 속담이란 무엇일까?
31. 속담이 생겨난 이유는?
32. 속담에는 왜 작가가 없을까?
33. 말은 비밀에 관한 이야기일까? 남들에 대한 험담이 되는 이야기일까?

어떻습니까?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말 조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었지요.

하지만 짧은 한 문장만으로 이렇게 많은 질문을 만들 수가 있고 그와 함께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쥐도 새도 모르게' 라는 말과 연관을 지어서 말이 새어나가는 것을 조심하라는 의미이상의 것을 찾아 볼 수도 있습니다.

위의 질문을 분석해보면

1. 어휘와 내용에 관한 질문 - 분석질문
2. 어원에 관한 질문 - 개념질문
3. 입장을 바꾸어보거나 가정을 통한 질문 - 상상질문(창의질문)
4. 비슷한 속담이나 격언에 관한 질문 - 연결질문(확장질문)
5. 경험이나 생활에 적용하는 질문 - 적용질문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전체적으로는 내용, 상상, 적용 등으로 나눌 수 있지만 좀 더 세분화해서 구분을 해보면 하나의 속담을 가지고 만들어 갈 수 있는 질문과 그로 인한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이란 이렇게 직접 해보아야만 가능한 것이지요. 교사의 질문만으로도 이정도가 나오는데 아이들이 직접 질문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왜 낮에는 새가 듣는 것을 주의해야 하고 밤에는 쥐가 듣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개념을 확장시킨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 재미있는 것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만들어진 속담이 아닌 과학적 원리가 적용된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기는 찬 공기보다 따뜻한 공기에서 더 빨리 움직이는 성질이 있어요. 낮에는 땅 근처의 공기가 더 따뜻해서 아래쪽에서 빨리 움직이고 위쪽에서는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소리는 위쪽으로 휘어지며 퍼져 나가서 위쪽에 있는 새가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반대로 밤에는 땅 근처의 공기가 더 차가워서 소리는 아래쪽으로 휘어지며 퍼져 나가요. 이때는 아래쪽에 있는 쥐가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지요. 그래서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속담은 과학적으로도 맞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질문과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교사인 우리가 아하!!라고 감탄할 만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사제동행이라는 말이 수업현장에서 즉시로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질문을 만드는 그 자체로도 아이들은 수업에 스스로 참여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게 됩니다.

‘말 조심 해라’

말을 조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또 어떻게 실천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 우리는 주저합니다. 알기는 알지만 막상 말로 표현하려고 하면 정리가 되지 않고 말을 얼버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이 있지요? 당연한 것을 왜 묻느냐고요? 말로 하는 교육이 왜 필요한지 우리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말로 표현을 하니까 잘 안되거든요.

조금만 이야기를 해보아도 경험 속에서 다양한 지혜를 끄집어 낼 수도 있고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터득하기도 하고, 뜻하지 않게 우리 조상들이 생활 속에서 과학원리가 많이 녹여낸 이야기들을 직접 알아가면서 우리의 이야기의 힘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속담에 나오는 동물들을 주인공으로 한 동화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새와 쥐를 주인공으로 하는 짧은 동화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언급한 후 숙제로 해 오거나 모둠별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발표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수업방법과 내용들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생각을 듣기만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배웠고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 몸 안에서 아니 머리와 입안에서만 뱅뱅 돌고 있습니다. 그 교육을 우리아이들에게 다시 되풀이 하고 있다는 이 아이러니한 교육의 방법을 바꾸자는 것. 1강에서 말씀 드린대로 방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질문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이렇게 드립니다.

당연한 것을 질문하라

당연한 것에 대한 질문이 속담하나에서 이렇게 많이 알고 싶은 것들이 나옵니다.

속담하나로도 이렇게 깊게도, 넓게도 또한 내 삶에 적용되는 이야기까지 배울 수가 있는데 어쩌면 질문으로 가르치는 수업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속담하나에서 이렇게 많은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활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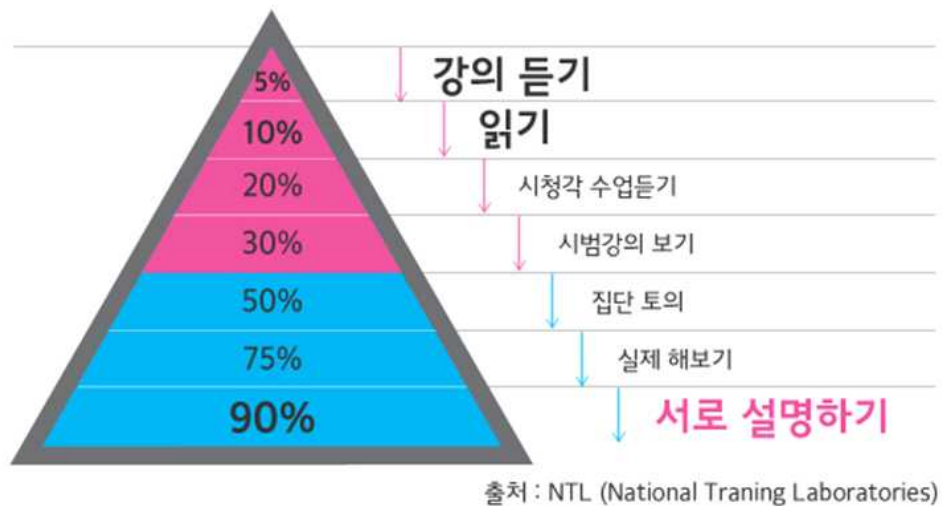
유대인들이 단 한 줄의 글로 4시간의 토론이 가능하다는 것, 그 이유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천해야만 하는 것들을 재미있게 아이들에게 서로 주고 받으면서 전할 수 있었던 비법도 아시겠지요?

03. 물음과 이야기로 열어가는 수업 맛보기

유대인들의 하브루타는 우리와는 아직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질문할 수 있는 권리를 돌려주는 그것은 매우 중요하합니다. 그리고 재미가 있지요. 재미가 있으면 아이들은 몰입합니다. 자기생각이 뚜렷하게 드러나므로 친구의 생각도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질문하는 수업은 창의를 진행형입니다.

말로 하는 수업의 효과는 이미 검증되고 있고 그 중요성을 부르짖지만 정작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가서는 다시 아이들에게 주입하면서 방법대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



학습효율성에서도 서로 설명하기의 효과는 90%라고 합니다. 이런 수업이 잘 진행이 되려면 아이들이 주도적인 설명하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들이 만든 질문을 친구를 통해서나 자신이 자료를 찾아서 공부한 것을 다시 친구에게 설명하기로 진행이 된다면 하나의 원리로 방법들이 차례로 꿰어지는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 가르치기 혹은 서로 교사되기는 학습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따라서 필자는 듣자마자 바로 실천이 가능한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물음과 이야기 그리고 함께 하기입니다.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답을 할 이야기들이 없으면 다시 맥이 빠집니다. 질문하는 수업이 도입되었을 때 선생님들은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을 힘들어 하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할 이야기들이 없는 아이들,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아이들 그리고 2강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기의 관심분야가 아니니까 관심이 없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현상들이 이야기하는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연습하는 시간 없이 바로 좋은 방법이라고 수업에 도입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쉽게 알아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한 달 내내 질문하고 이야기하는 수업을 하라고 한다면 금방 지치질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할 이야기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단계이므로 조금씩 조금씩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지속하는 것이 중요한데 시작하자마자 완벽하게 아이들이 활기차게 참여하는 꿈은 버리는 것이 좋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1년 정도만 지속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질문을 공부하는 재미를 제대로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육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쉽게 쓸 수 있는 것은 교육이 아닌 작은 기법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지속하려면 아주 작은 변화라도 감지할 수 있는 교사의 민감성입니다. 달라지는 아이들, 변화하는 아이들을 발견하시는 힘만 갖추신다면 물음과 이야기 그리고 함께 하기가 정착되는 데 시간을 단축시킬 것입니다.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로 수업을 진행해 볼까요?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 할 것입니다.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의 제약 때문에 이 수업이 불가능하다는 의문도 제기하십니다.

때로는 시간의 결핍이 더 좋은 수업안을 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도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에 물음과 이야기가 있는 수업이 가능할까?

일단 수업맛보기를 해보겠습니다.

1. 만들어진 질문을 짝과 비교하면서 읽어봅니다.
2. 내가 만든 질문 중에 꼭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을 하나 골라봅니다.
3. 내가 만든 질문을 짝에게 해서 짝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4. 짝의 이야기를 듣고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 봅니다.
5. 짝의 질문에 답을 해 봅니다.
6. 서로 그 질문을 왜 선택했는지도 물어보고 서로 답을 해 봅니다.
7. 선택한 하나의 질문과 관련된 다른 질문도 찾아보고 서로 이야기를 해 봅니다.
8. 전체의 질문을 서로 분류를 해 봅니다.

(내용(분석), 개념, 상상, 연결(확장), 적용 등)

9. 질문하면서 새롭게 느낀 점을 서로 질문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10. 질문하기 전과 질문을 하고 난 다음을 비교해 봅니다.
11. 질문을 만들고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본 다음을 비교해 봅니다.
12. 수업내용과 이야기를 하면서 새롭게 배운 점, 느낀 점을 중심으로 정리

좀 더 확장된 수업을 하려면 질문분석에 제시된 것을 응용하시면 됩니다.

말에 대한 속담을 전부 찾아보기, 동물과 관련된 속담, 과학적 원리가 있는 속담, 각 속담과 관련된 주변의 예시 찾기, 속담과 관련된 동화나 시 찾아보기, 속담과 관련된 소설 찾기 등 재

미있게 수업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속담에 관한 것을 하는 김에 수업안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담을 30개 정도 찾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친구따라 강남간다.
낮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간에 기별도 안 간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이다.
금강산도 식후경

.....

이 문장들을 반 쪽씩 잘라서 서로 다른 문장이 되도록 한 다음에 해석을 해 보라고 하면 재미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이 우리속담에 친숙하도록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하룻강아지 기억자도 모른다.
계란으로 식후경
낮 놓고 천냥빚 갚는다.
고래등 싸움에 배가 산으로 간다.

이렇게 속담놀이를 하면 우리 고유의 정서와 관련된 단어들과 상황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현재의 상황에 대입을 하면서 놀이하듯 친구끼리 물어보면서 공부를 하면 지혜를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교사연수 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질문을 만들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한 두 개의 질문으로는 그 효과를 잘 못 느낍니다. 적어도 10개 이상의 질문을 만들어야 보아야 하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1. 자세히 관찰을 하게 됩니다.
2.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3. 낱말 혹은 그림의 이면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4. 작가의 의도가 궁금해집니다.
5.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6. 다르게 연결되는 것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7. 지나치는 부분이 거의 없어집니다.
8. 아주 작은 것도 놓치지 않게 됩니다.

짜크와 이야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답을 하지요.

1. 같은 질문에 생각이 다른 답에 놀랍니다.
2. 짜크의 이야기를 통해 또 다른 관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3. 나와 다른 생각에 깜짝 놀랐습니다.
4. 당연한 질문인데도 자꾸 이야기가 연결되어 나가는 것이 신기합니다.
5.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졌습니다.
6. 상대가 궁금해졌습니다.
7. 친구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몰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글을 읽기만 했을 때, 질문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만든 질문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의 감동을 잘 말씀해 주십니다. 놀랍게도 이런 말들은 아이들과 수업했을 때도 똑 같은 반응이 나옵니다. 교육의 효과는 가르치는 것보다 무엇을 어떻게 배워갈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가 뚜렷해집니다. 혼자 하는 공부에서 함께하는 공부로의 전환 나의 생각과 짜크의 생각을 발견해가는 함께 하는 물음과 이야기가 있는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